

# 턱뼈 위치 바로잡기...기능개선 목적 미용은 부수효과



## 건강 바로 알기 양악 수술

오지수

조선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수 년 전 몇몇 연예인들이 몰라보게 달라진 외모를 양악수술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양악 수술 후 환골탈태되는 과정을 담은 방송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이후 양악수술이 턱을 작게 만들어주고 가깝하게 해주는 미용 성형수술의 일종으로 잘못 인식되었다.

양악수술이란 말의 광고나 방송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노출되면서 매우 보편화되어, 외래 진료를 하다 보면 "양악수술을 받고 싶어요."라고 하는 환자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심지어 양악수술이 불필요한 환자가 단지 미용 목적으로 양악수술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다. 이에 혼동하기 쉬운 양악수술, 악교정 수술, 안면윤곽수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악교정-양악-안면윤곽 수술의 차이=이러한 수술들은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시행하게 되는데, 일

위턱·아래턱 동시 교정 양악 수술  
심하지 않은 주걱턱 교정치료만  
정상적인 턱 미용 목적 수술  
턱 기능에 문제 초래 할 수도

반인들에게는 매우 낮은 단어이다. 구강악안면외과는 한문 표기로 구강(口腔)+악(顎)+안면(顔面)+외과(外科), 즉 입+턱+얼굴 부위의 외과적인 치료를 하는 과이다. 양악수술, 악교정 수술, 구강악안면외과 모두 '악'이라는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가는데 '악(顎)'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턱(발음하거나 씹는 일을 하는 기관)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턱뼈는 상악(上顎, 위턱)과 하악(下顎, 아래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악물다'라는 단어를 일상에서 종종 사용하곤 하는데 이는 위턱과 아래턱을 꼭 다물었다는 의미이다.

즉, 턱뼈의 위치를 바로잡는 수술을 총칭하여 악교정 수술이라고 부르며, 이 중에 위턱과 아래턱을 동시에 수술하는 경우 양악(兩顎)수술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양악수술은 악교정 수술법 중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정교합을 동반하는 환자에서 위턱뼈는 정상범위이지만 아래턱이 주걱

턱인 경우 하악만 수술하는 악교정 수술을 하게 되고, 위턱뼈가 정상적이지 않거나 아래턱과 함께 위턱뼈의 위치 변화가 필요한 경우 양악수술의 적응증이 된다.

최근에는 악교정 수술 대신 턱교정 수술이라고 부르는 추세이다. 턱교정 수술이 성형수술로 오인되는 이유는 턱교정 수술 후 턱뼈가 정상적인 위치로 이동되면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안모(顔貌, 얼굴생김새) 개선의 효과 때문이다. 특히 양악수술의 경우 위턱과 아래턱이 동시에 이동된다 보니 드라마틱한 외모의 변화가 많다. 하지만 턱교정 수술은 단순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아니라 턱뼈를 정상적인 위치로 이동시켜줌으로써 턱뼈의 기능을 개선 시키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라는 광고 문구처럼 환자가 잘 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심하지 않은 주걱턱인 경우 수술 없이 교정치료만 하거나 턱교정 수술 전후로 교정치료가 필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에 반해 턱뼈의 안면윤곽수술은 정상적인 교합을 가지고 있으나 턱뼈 모양이 비정상적인 경우 시행하는데 턱뼈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기능의 개선과는 무관한 성형수술이라고 할 수 있다.

◇환자 판단 기준=턱의 위치가 정상적이고 부정교합도 없는 환자가 미용 목적의 턱교정 수술을 받을 경우 오히려 턱뼈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턱교정 수술이 적응증임에도 안면윤곽



조선대치과병원 오지수 교수가 아래턱과 위턱뼈의 위치 변화가 필요한 환자를 상대로 양악수술을 하고 있다. <조선대치과병원 제공>

수술만 받는 경우 턱뼈 기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안모 개선의 효과 또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턱교정 수술과 안면윤곽수술 중 어떤 수술이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는 교합이나 안모의 평가, X-ray,

CT 촬영 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 환자 스스로 수술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교정 및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의 평가가 필요하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화순전남대병원 '보건의료 대표협의체' 회의 '공공보건의료 전남권역 협력체계' 본격 가동

화순전남대병원(병원장 신명근)이 최근 공공보건 의료 전남권역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병원 회의실에서 남태근 진료처장·박원주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필수보건의료 원내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추진 배경과 주요사업 등을 공유하고, 전남권 필수보건의료 문제 해결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지난해 2월 화순전남대병원은 '공공보건 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이끄는 전남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이 사업은 필수보건의료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전남도의 지원

으로 추진 중이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정부 지정센터·지역 보건 의료기관 등과 '필수보건의료 협의체'를 구성해 회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 응급질환 협력사업,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사업 등 필수보건의료 협력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박원주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은 "전남권역 구심병원으로서 정부지정센터·지자체·보건소·소방본부 등과 의료·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의료 강화는 물론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채희종 기자 chae@

## 전남대병원 정명호 교수, 급성심근경색증 등록연구 8만명 돌파

### 한국 실정 맞는 예방·치료법 연구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정명호(사진) 교수가 총괄책임연구자인 한국인 심근경색증 등록연구(KAMIR) 사업이 등록 환자 8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005년 대한심장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된 등록연구 사업은 지난 2018년 10월 7만명 달성 이후 3년 4개월 만에 새로운 기록을 수립했다.

한국인 심근경색증 등록연구는 한국 실정에 맞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예방과 진단, 치료법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연구결과는 미국의학회지 JAMA, 미국심장학회지 JACC, 미국순환기학



회지 Circulation, 영국의학회지 BMJ 등 세계적 학회지에 꾸준히 발표됐다.

또 연구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355편(SCI 326편)의 논문을 국내외 학회에 발표하는 등 세계 최고수

준의 연구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국 40여개 대학병원에서 총 8만명의 심근경색증 환자를 등록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심근경색증 교과서를 출판했으며, 2020년에는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약물치료 전문가 합의문(Expert Consensus), 2021년에는 중재시술 치료법에 관한 전문가 합의문을 발표했고, 올해에는 심근경색증 교과서 개정판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 같은 체계적인 연구 성과에 대해 일본·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협력연구 제안을 받아 공동연구 및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미국·영국·대만·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과도 활발한 교류를 펼치고 있다.

정명호 교수는 "등록연구 사업을 통해 국제적으로 대한심장학회와 전남대병원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한국인 심근경색증 환자의 예방과 치료, 재활방법 개발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대 양승환 교수 연구팀, 청각 활용한 비만개선제 개발

전남대학교 공동연구팀이 해조류인 청각을 활용해 비만을 개선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품화하는데 성공했다.

전남대 양승환 교수(생명산업공학과)와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공동연구팀은 전남지역특화 해조류인 청각을 활용해 항비만 및 장 건강개선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개발하는데 성공하고, 관련 기술을 특허출원한데 이

어, 기술 이전까지 마쳤다. 기술이전을 받은 ㈜바다랑해초장은 이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출시했다.

공동연구팀은 최근 2년간 전남 지역특화 양식수산물인 청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항비만 생리활성 유효성분을 발굴해 임상시험한 결과, 장 건강개선 및 항비만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술은 전남지역에서 대량 양식되는 해조류

와 지역 특산물인 청각을 이용해 바이오헬스케어 소재 개발에 활용되는 것은 물론 해양치유와 연계된 제품개발에도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어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 R&D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해양약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Marine Drugs' (영향력지수 5.118, JCR 상위 7.627%)와 응용생물공학분야 'Applied Sciences' (영향력지수 2.679, JCR 상위 41.667%)에 각각 게재됐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삼지점 062)529-5335~6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용산지점 062)526-0222~3  
지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화정지점 062)372-0421~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동지점 062)512-1984~5  
농성지점 062)361-4472~4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아니로마트 062)373-323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운암지점 062)527-3295~6  
유덕지점 062)373-3235~6  
아니로마트점점 062)511-290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비틀지점 062)381-1971~2  
운천지점 062)371-2772~3

지역대표 금융기관

